

'말 많고 탈 많은' 광주 중앙1지구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롯데건설 "강남 시그니처 브랜드로 1조2000억 PF 조달" 빛고을 측 "후분양 도입, 분양가 1900만 원 잠정 합의"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최대 노후자위로 알려진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의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 원을 우선 조달하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아파트에서만 내걸었던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

정했다.

빛고을 측은 앞서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빛고을은 그동안 3.3㎡당 분양가 2000만 원에 비공인면적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6월1일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으나 사업 부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차질을 빚었다.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보상과 공원 시설 설치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만 전체 사업 중 재원 조달을 담당하는 수익사업인 아파트 사업계획이 분양가 규제에 발목 잡히면서 전체 공원 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빛고을 측은 광주시는 고분양가 정책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비공인 시설 면적 증가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도입, 사업 계획을 제출해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아파트 세대수와 비공인 시설의 면적이 대폭 늘어나



광주 중앙공원

는 공원사업의 특성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수준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한 고분양가를 유지한 것으로, "후분양을 도입하면서 분양가를 1900만 원

에 잠정 합의했다"고 빛고을 측은 설명했다.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맺은 것 역시 사업계획변경 과정에서 후분양 도입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 공정률이 80%

에 이를 때까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는 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사가 시공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빛고을 내 주주사인 ㈜한양과 우선적으로 시공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 약정대로 한양과 시공협약에 나서지만 협상이 무산될 경우 롯데건설이 전체 시공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빛고을 측 판단이다.

빛고을 측 관계자는 "시와의 조정 협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6500억원의 자금이 조달돼 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보상 등 향후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아들아! 엄마왔어' 세월호 참사를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한 유가족이 추모의 글을 남기고 있다.

'풍랑 속 초과 적재' 화물선 침몰 사고 관련 3명 송치

가선 풍랑 속에서도 적재량을 초과한 채 운항하다가 침몰한 3600t급 화물선의 선사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적재량을 초과해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케 해 인명·해양 오염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선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월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km 해상에서 침몰한 3600t급 화물선 A호(승선원 9명)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고, 풍랑 속에서도 운항을 강행해 인명·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

다. 선박 침몰로 선장을 비롯한 8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표준 적재량(318t)보다 많은 화물컨테이너 326개를 싣게 했고 이 때문에 적재장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침수가 급격히 진행, 침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이민혁기자

통조림 따보니 대마초가...코로나 사태 '마약 직구' 폭증

올해 1분기 총 189건(99kg) 적발...전년대비 68%증가 다크웹·텔레그램 등으로 주문...물품 '던지기 수법'

올해 1분기(1~3월) 특수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대비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마약 반입 증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인구가 감소하면서 해외직구(직접구입)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189건(99kg)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8건(57kg)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양은 58kg으로 전년 대비 23kg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또 신종 마약류인 러쉬도 지난해 같은 기간 5건(2kg)에서 올해 15건(12kg)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마약사범들은 다크웹(darkweb)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문하고 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이같이 주문한 마약 물품을 여러 단계를 거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자가 직접 마약을 찾으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크웹'은 접속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을 말한다.

축하카드 속에 마약을 얇게 퍼 넣어 편지처럼 보내거나, 식품 통조림 속에 마약을 넣는 경우, 종이상자 골판지 사이에 펼쳐놓는 등 마약 은닉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태용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은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마치 제품처럼 찍어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16명(구속 6명·불구속 10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지난 3월 미국에서 진공포장 한 대마초 416g을 수프가 담긴 통조림 속에 은닉해 특수화물로 수입한 마약사범이 인천본부세관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날 발견된 스프 통조림 모습.

서 합법화된 대마류(전자담배용 액상대마, CBD 오일 등)와 일반 의약품처럼 통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거동편, 로라제팜 등)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며, 마약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주문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